국내 제약사 해외 투자 본격화 전망

지난 5년간 국내기업간 투자 및 M&A 13건 … 국내기업 M&A 수요 증가세

글_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산업정책팀 윤지영 책임연구원

최근 제약산업 M&A의 배경과 시각

최근 국내 제약산업은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쌍벌제, FTA로 인해 경영환경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에서 M&A는 기존에는 기술(파이프라인, 제품)과 판매망 확보나 규모의 경제 등 본연의 목적 외에도 경영난을 맞은 제약사가 자연스럽게 타사에 흡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최근년도에 들면서 신규분야 진출, 후보물질의 확대, 생산설비의 인수 등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동기가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한해에만 국내 제약사간의 투자와 M&A등이 여러 건 발생하였으며, 해외 다국적 제약사의 한국 내 투자활동도 동시에 활발해 지고 있다. 이들은 자사에 없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위해 바이오 및 제약사 M&A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신흥시장에서는 제네릭 부문에도 확대하여 시장 점유율을 유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간 국내 제약산업의 M&A는 제약업체의 주주들이 대체로 경영권 유지 · 세습에 강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어서, M&A를 경영전략의 방법이 아닌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투자가 발생하더라도 경영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지분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 글에서는 지분 투자의 경우를 포함한 국내외의 최근 M&A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제약산업 M&A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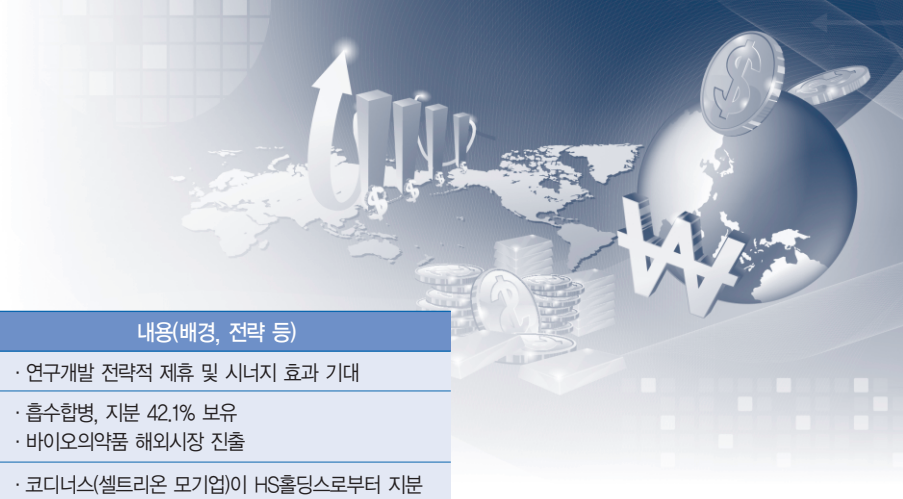
• 최근 국내 ↔ 국내 제약 M&A 현황

최근 5년(2008~2012)간 국내 제약기업간 투자 및 M&A는 13건, 건당 규모는 45억~500억원에 이른다.[1)]

M&A의 목적으로는 신약 파이프라인과 바이오 등 신분야 확대 · 진출과 신기술 취득, 생산설비 확보 등이었다. 분야 확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녹십자의 이노셀 투자, 한독약품의 제넥신 투자 등이 있다.

사업과 설비확대 등을 위한 사례로는 화장품 제조업체였던 한국콜마가 비알엔사이언스를 인수하여 콜마파마로 사명을 변경시키고 제약업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였고, 일동제약은 생산설비의 확대를 위해 팜스웰바이오를 인수하였다.

1) 국내 제약업의 환경변화 대응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에서 제약사 관련 M&A만을 포함하였고,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예: 태평양제약의 모기업 아모레퍼시픽과의 합병 등)



■ 표 1. 최근 국내기업간 투자와 M&A사례

인수(투자)기업	피인수기업	시기(년)	금액(원)	내용(배경, 전략 등)
한미약품	크리스탈지노믹스	2008	310억	· 연구개발 전략적 제휴 및 시너지 효과 기대
중외제약	크레아젠	2008		· 흡수합병, 지분 42.1% 보유 · 바이오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셀트리온	한서제약	2009	150억	· 코디너스(셀트리온 모기업)이 HS홀딩스로부터 지분 24.03% 인수 · 제약사업 확대 및 바이오시밀러 유통 담당
동아제약	삼천리제약	2010	500억	· 특화된 경쟁력 지닌 제약사 인수로 경쟁력 강화 · 생산설비 확보로 생산공정 수직계열화 가능
유한양행	엔솔테크	2011	45억	· 지분 20% 취득
유한양행	테라젠이텍스	2012	200억	· 유전체분석기술 확보 목적
KT&G생명과학	머젠스	2011	300억	· 신약개발벤처 인수
녹십자	이노셀	2012	150억	· 지분 23.43% 인수 · 세포치료제 기술 성장 가능성, 자회사(녹십자랩셀)와 시너지 기대
녹십자	일동제약	2012		· 지분 15.35%확보(환인제약으로부터 7% 추가매입으로 2대주주)
바이넥스	에이프로젠	2012	160억	· 슈넬생명과학으로부터 지분 인수
일동제약	팜스웰바이오	2012	60억	· 생산공장 및 유형자산 인수
한국콜마	비알엔사이언스	2012	220억	· 제약업 진출을 위함
한독약품	제넥신	2012	166억	· 지분19.72%인수 ·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역량 보완 시너지 효과

자료 : 데일리팜, 메니파나 등

• 국내 ↔ 해외 제약 M&A 현황

다국적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등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과 함께 성장성이 높은 신흥 제약시장(Pharmeging Market)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제약사에 대한 투자와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와 해외 제약사 간의 M&A로는 2012년 미국 제약사인 알보젠이 근화제약을 인수한 사례가 있다. 2010년에는 글로벌 제약사인 GSK가 동아제약에 투자하여 지분 9.9%를 인수한 사례가 있다. 또한 M&A는 아니지만 2012년 12월 이스라엘의 복제약 전문 글로벌 기업인 테바가 한독약품과 합작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2)]

한편 세계 3위 제약기업인 노바티스는 노바티스벤처펀드를 결성하여 해외 연구개발형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파맵신 등에 10억원 내외의 투자를 하는 등 적극적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3)]

2) 테바와 한독약품이 51:49 비율로 15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하여 합작사인 한독테바 설립 예정(금감원 기업공시, 2012.12.17)
3) 노바티스벤처펀드를 통해 네오믹스(2008), 파맵신(2009), 큐로사이언스(2011)에 각 100만달러씩 투자했고 향후 2000만 달러까지 한국 제약벤처에 투자키로 함(조선경제, 2011.3.11)

■ 표 2. 해외제약사의 국내 M&A(투자) 현황

인수(투자)기업	피인수기업	시기(년)	금액(원)	내용(배경, 전략 등)
알보젠	근화제약	2012	650억	· 유상증자(162만주,228억) 및 50.5% 지분인수 · 제네릭 제품과 시장확보
GSK	동아	2010	1,429억	· 동아제약의 지분 9.9% 인수 · 국내외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자료 : 데일리팜, 메니파나, 약업닷컴 등

해외 제약 M&A 현황

2011년간 해외 바이오 · 제약사 M&A는 총 900억 달러 규모이며 금액순 상위 15개의 건당 규모는 8억~175억 달러로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였다. 순위별로는 사노피(Sanofi)의 젠자임(Genezyme)사 인수(175억달러), 다케다(Takeda)의 니코메드(Nycomed) 인수(120억달러)와 같은 초대형 인수도 있었지만, 11위권 부터는 9억달러 이하로 거래액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한편 글로벌 M&A시장은 위에서 설명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해외 투자가 지속되면서 2007년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인도에서 182건, 일본에서 117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2011년 한해에만 104건의 M&A가 발생하였다.[4)]

■ 표 3. 2011년 상위 바이오 · 제약사 M&A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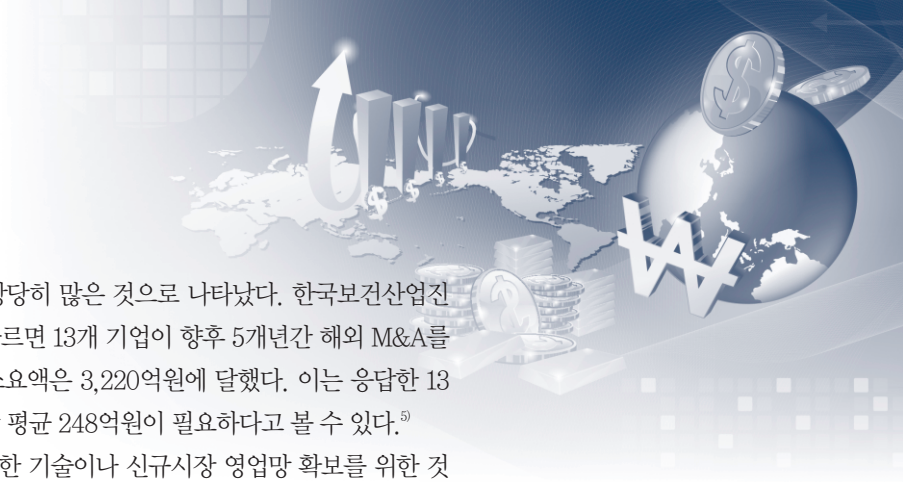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금액(억달러)	비고
Sanofi	Genezyme	175.0	
Takeda	Nycomed	120.0	
Gilead	Pharmasset	112.0	R&D 중심
Teva	Cephalon	62.0	
Grifold	Talecris	33.0	
Pfizer	King Pharmaceuticals	32.6	
Endo Pharmaceuticals	American Medical Holdings	25.5	
CVS	UAM	10.6	
Alexion	Enobia	10.4	R&D 중심
Forest	Clinical Data	10.4	R&D 중심
Alkermes	Elan Drug Technologies	9.0	R&D 중심
Amgen	Biovex	8.7	R&D 중심
DAiichi Sankyo	Plexxikon	8.2	R&D 중심
Teva	Tayio	8.2	
Aspen	Sigma	8.0	

자료 : IMAP, Global Pharma & Biotech M&A Report 2012

국내 제약사의 해외 M&A 수요

국내 제약사가 해외 관련기업을 인수한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사례로는 2008년 카엘젬백스가 노르웨이 소재 항암제 개발사인 젬벡스(Gemvax)를 27억원을 들여 지분 100%를 인수한 것이 유일하다.

4) Datamonitor, IMAP 자료



그렇지만 향후 국내 제약사의 해외 M&A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수요 조사에 따르면 13개 기업이 향후 5개년간 해외 M&A를 필요로 하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예상 소요액은 3,2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응답한 13개 기업이 각 1건의 M&A를 계획한 것으로 볼 때 건당 평균 248억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5]

M&A의 내용은 주로 해외 바이오벤처의 인수를 통한 기술이나 신규시장 영업망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특정 후보물질이나 제약 관련 신기술을 초기 개발단계에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6]

또한 투자 선호 지역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많이 꼽았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자본시장 침체로 투자 대상의 인수 가능액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7]

수요조사 결과로 볼 때, 우리 제약업계는 해외M&A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실제 추진사례도 빈번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맺는글

최근의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제약사 수요조사 결과, 우리 제약기업의 M&A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로 2012년에는 국내 제약 기업간 투자와 해외에서 국내로의 투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2013년에도 그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 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가 출범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한 국내 제약사의 해외M&A등 해외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8] □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사 해외M&A 및 전문인력수요 조사, 2012.8

6) M&A를 희망하는 주요 기술 분야는 종양치료제, 순환계 용약, 생물학적 제제 등으로 나타났다.

7)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준비를 위한 제약업체 간담회등에 따르면 동남아, 남미(브라질)등의 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2000억원 이상)의 인수를 검토 중인 제약사도 있었으며,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후보물질 라이센싱 등에 주력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특히 최근 4년간 5건 이상의 해외M&A를 검토한 모 제약사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수협상가가 낮아진 유럽의 제약 · 바이오벤처에 많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인수 비용은 평균 200~300억원이었다. 반면 시장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주가 재반등으로 기회를 놓친 사례도 있었다.(복지부 제약업체 간담회 2012.7월)

8) 보건복지부가 2013년 출범 계획 중인 펀드로서 제약기업의 해외 M&A, 기술과 생산설비, 영업망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2012년 8월